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럼

내 것인데

내 돈으로는 내 마음대로 웃도 사 입고, 밥도 사 먹고, 자동차도 사고, 저금도 할 수 있다. 왜? 내 돈이니까.

내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 벽지를 바꿀 수도 있고, 문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정원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 왜? 내 집이니까.

내가 제일 마음 편하게 야단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바로 내 자식들이다. 왜? 그들은 내 가족이니까.

나에게 가끔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할 때 나는 '전적으로 나에게 넘긴다면 하겠다'고 말한다. 50대 50이라든지, 60대 40이라든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전적인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되어야 내 마음대로 할 것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아울러 성령의 은사도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내 것이다.

나는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앓은병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는 등 각종 병을 고치며, 바람을 잠잠케 하고, 비를 멈추고...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주의 종은 이 은사를 사용하다가 교계의 눈총을 받아 쓰지 않고 사장시켜 이를 주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내 것을 가지고 남의 눈치를 보는지. 왜 남의 인생을 사는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우리를 못살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악한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을 수 있으니 경내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돈도, 내 집도 잘 간수하지 않으면 도적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도 잘 간수하지 않으면 도적맞을 수 있다. 잘 지키는 방법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잃지 말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5:19).

쓰지 않은 연장은 녹슬고 고인 물은 썩는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대는 기도원을 향하고 있었다. 교육부서는 수련회 준비를 위해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목사님도 분명 기도원에 상주하시면서 수련회와 여름산상집회 준비를 위해 현장 독려로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계셨을 터이다. 또한 성도들은 호텔 예약 등 집회 참여 일정을 조율하며 뜨거운 8월을 준비하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그 모든 우리의 행복한 일상들을 멈추게 했다. 벌써 2년째이

때에 또다시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말았으니 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무딘 철 연장은 녹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더버린 연장을 빛이 나도록 갈고, 고인 물은 물고를 터서 신선한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처음 전도사 임명을 받을 때 주일 첫 예배에 앞서 단상에 올라가 목사님 앞에 섰다. 당시 흰 양복을 입고

그날에 받을 상이기 때문이다. 화요일 아카데미 온라인강의(저녁 8시 30분)와 수요일 온라인 예배(저녁 9시 정각), 금요일 온라인 예배(저녁 8시 정각), 주일 온라인 예배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다. 또한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rusmwhJzyrs>에 접속하면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2시간짜리 기도영상이 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너는 기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꿈꾼다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 게 현실이 되어버렸고, 각종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이 끝이 언제, 어디가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왔고,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접종은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드시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종식시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꾼다.

그러나 생각보다 오랜 멈춤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침체될까 목사님은 늘 그것이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 사랑들이 식어서 안주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왜 목자로서 근심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일 4부 예배를 열어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서있는 목사님을 보는 순간 잘 갈린 시퍼런 칼날 앞에 서있는 느낌이였다. 주일에 배를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 터, 달기만 해도 잘라질 듯한 그 날카로움에 귀신들이 혼비백산 떠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은 매일 그렇게 연장을 갈아 준비하는 분이다. 그래서 어디서든, 목욕탕 사우나에서든, 비행기 안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능력을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실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코로나에 놀려있어선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꿈을 키우고 우리의 계획을 진전시켜 가야 한다. 목사님이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의 백만 집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시고, 코로나 이후 다시 시청광장에서, 전국 체육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집회를 계획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적극 기도로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6).

주 앞에 서는 날 나 홀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그때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가? 매일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매일 회개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무뎈진 것이 무엇이지 점검하고 녹슬고 무뎈진 연장을 갈아야 한다. 고여서 썩어있는 물을 모두 걸여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공급 받아야 한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수요 및 주일에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1~6)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 13:20).

제가 70이 넘게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 중의 진리요, 제가 깨달은 행로법칙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만남으로 인해 운명이 바뀌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이민을 갔을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지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 결국 그 사람의 영향으로 슈퍼마켓을 하게 되고, 세탁소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중에 세탁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음식점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음식점하고요, 공부하는 사람이 나오면 공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누굴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 제게 있었습니다. 2014년에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마친 뒤, 곤잘레스 목사의 제안으로 강사 목사들과 골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민호 목사가 운전을 하고 골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분이면 도착하던 골프장에 2시간이 넘도록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신 목사가 길을 잘 몰라 헤매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그곳은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는 지라 길을 물어 물어 가는데, 골프장을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거늘 건물 수위들이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묻다 보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맬 수밖에요. 더욱이 교통정체까지 극심한지라 우리는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해서 결국 18홀을 다 돌지도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비상이나 추락이나 만남의 결과다

그래도 이건 운동하러 간 일이니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난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5년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멕시코 케레타로(Queretaro) 집회 이틀날 오전 10시, 실업인들을 위한 세미나가 피에스타메리카나 호텔 대연회장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차로 30분 남짓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시까지 그 호텔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늦게 출발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운전하는 자가 길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바람에 11시가 넘어서야 세미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케레타로 지역의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또 차 안에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많은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고, 저는 약속도 지키

지 못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뼈저거리고 망신당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일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도원에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 신현명 목사와 담양에 나간 일이 있습니다. 신 목사는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 길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면 길도

안 막히고
빨리 갈 수

있다고
안내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내비게이션이 정한 도
착시간 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

니다. 저는 신 목사에게 “원주민에게 물어보면 지름길을 알려준다. 경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안내자를 잘 만나면 목적지에 빨리,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내자가 그 지역의 골목이나 오솔길까지 다 알고 있다면, 안내자가 지식이 풍부하다면, 안내자가 경험이 많다면, 인생이 수월하게 풀리고, 대성할 것입니다.

그런 안내자가 있냐고요? 있다가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과 부귀와 건강과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들도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그들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고행과정만을 논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거기에 이르려면 그곳의 주인이신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 후로 신민호 목사가 아닌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운전하게 했더니 헤매지 않은 것처럼, 제가 멕시코에서 그곳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고용했더니 집회나 세미나에 다니는 늦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내자가 없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

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

지 아니

하면

보

혜

사

가

너희

에게로

오시지 아니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7~8)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객지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라 각자의 안내자가 되시어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므로 탄 길로 가지 않고 넉넉히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책망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사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인생길에서 헤매고, 길이 아닌 길로 가다가 다치고 손해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방법 중 하나가

‘모르면 랍비에게 물어봐라.’입니다. 맞습니다. 욥기서에도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8)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주의 종이나 믿음의 선진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의 영인 성령께 물으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안 묻습니다. 왜? 기도가 힘들니까.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묻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전복됩니다. 비행기도 제 길을 이탈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길 되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인생이 전복되고,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 무사히 이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을 골라서 만나야 합니다. 이왕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택하고, 이왕이면 정직한 사람과 사귀어야 하고, 이왕이면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 혹시 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동업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사람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도 그 사람처럼 동화되고 동질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고후6:14~16)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해외집회에 가면 물설고 말도 설어서 유능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 하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훨씬 모든 일에 수월함을 때면 느낍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행객입니다. 낮설고 물선 이곳에서 처음과 나중, 곧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무엇이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그분은 늘 성령으로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흥년을 대비하자

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양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실한 재무구조 및 외화자산의 취약성을 주시했던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내재가치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고 단기간에 재매각하여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에 특별히 강인한 단결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은 여지없이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반면 1999년 말부터 민간주도의 부동산 개발 및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는 가계부채 규모를 GDP 대비 2000년 말 41% 수준에서 2021년 올해 1분기 말 90.3%까지 상승시켜 결국 세계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계 소득은 전후방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부문이 균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 한 시중금리, 세율 및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충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중 42%가 주택담보부이기 때문에 보유 주택의 시장가치가 하락하거나 금리상승의 속도가 빨라져 채권의 부실화 속도가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면 모든 참여자가 고육지책을 채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나 이념을

배제하고 읍참마속 수준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만 도래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벤처펀드도 부실화된 기업의 유형자산과 미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권을 할값에 인수하는 것이지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하락되거나 소멸된 공동주택, 혹은 매장을 담보로 하는 가계채권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기관의 자산을 매입하는 기관투자자는 아직까지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 19는 각국마다 유사 이래 최대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소비확대와 고용율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목표한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국들은 외화유동성의 유출을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테이퍼링의 착수를 공식적으로 보류하고 있지만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고,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신다’고 강조하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소모적인 갑론을박보다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할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집사

우리 편이 더 많다!

얼마 전 만난 한 친구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뒤에서 험담하는 걸 알고 나니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 말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 “우리 목사님은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이단이라고 해도, 사천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며 힘을 내셔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과 직분자들,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단지 당신에게 부정적인 몇몇 사람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지금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여럿이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간에 호불호가 갈리고, 안티(Anti-)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는 법. 통치권자가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지지율은 50%를 넘기 힘들고, 언론과 야당은 문제 제기와 날선 비판으로 제 역할을 한다. 목회자라고 예외일까? 설령 교인이고 직분자라도 마냥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호의적이나 누군가

는 “저 목사는 저게 문제다.” “우리 교회(부서)는 이래서 싫다.”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주목하느냐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왕하6:16)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싼 것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목사님,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 부정적인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훼방하는 사람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넓히면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온 인류를 품으셨고, 총회장 목사님도 그렇게 전 세계를 복음화 하셨다. 우리 편이 더 많다! 고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신혁주 전도사

겸손(謙遜)

미국의 정치가이며 사상가요, 발명가요,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12가지 덕목을 적어놓고 그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1. 절제: 과음, 과식하지 않는다.
2. 침묵: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3.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4. 결단: 해야 할 일은 꼭 한다.
5.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6. 근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7. 진실: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8. 정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9. 중용: 극단을 피한다.
10. 청결: 불결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11. 평정: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는다.
12.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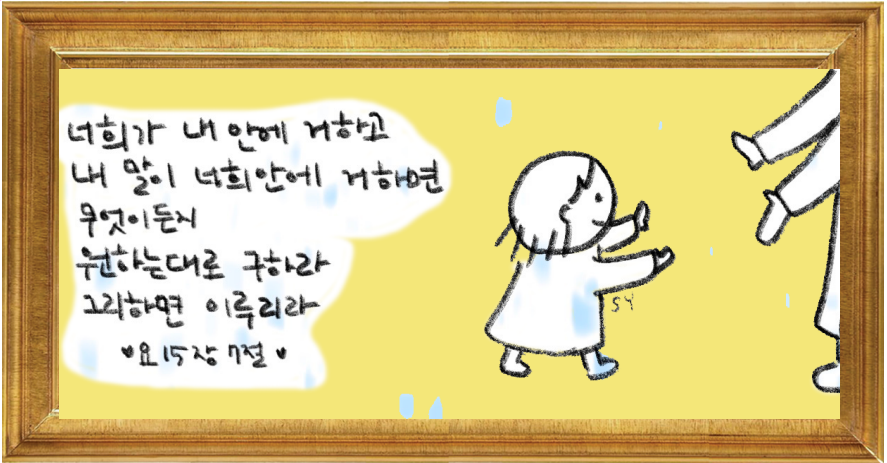
이렇게 적은 프랭클린은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네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위에 적은 항목이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제1 덕목에 ‘겸손: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라고 써넣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5:5~6).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18:12).

예수중심편집실



나를 보내신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전, 뜻이 있는 교사들과 함께 학교 하고 시간에 맞춰 물티슈 전도를 나갔다. 함께한 교사들과 기도를 마치고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이 설렜다. 그러나 물티슈를 받는 아이들의 반응도 천태만상. 그러던 중 한 사건이 터졌다. 어깨동무를 하고 약간 거친 언어를 내뱉으며 교문 밖을 나서는 너댓 명의 남학생들에게 물티슈를 전하면서 인사했다. “안녕 애들아. 혹시 너희 교회 다니니? 더운데 공부하는데 수고 많지? 힘내.” 그런데 손에 물티슈를 받아든 한 학생이 물티슈를 하늘로 던지더니 발로 차 버린다. 아~~~ 이전 같으면 참지 못하고 뽕으락푸르락했을 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뒤도 안 돌아보고 시시덕거리면서 가는 아이들에게 한번 외쳐준다. “애들아, 예수 믿으렴.”

땅에 떨어진 물티슈를 줍는데 마음이 뜨거워졌고 동시에 회개가 되었다. “주님, 목사라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 한참 어린 학생들의 무시를 받으면서 전도를 해보니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섬김만 받고 편하게 있었던 것을 실감합니다. 다

시 제가 있어야 할 현장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편안하고 안일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비록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를 새롭게 하여주시옵소서.”

새벽기도와 노방전도, 그리고 저녁부서 모임이 끝나고 늦은 밤 목회자 기도 모임 때 무릎 꿇으니 피곤 대신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이 여태껏 식어본 적이 없으며 뒤로 물러난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에 본인 믿음 챙기기도 급급하여 전도할 힘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도하러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새 힘이 다시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 사명자는 힘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도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는 곧 끝난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다시 한 번 총력 전도해보자.

이현승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올림 있는 삶 ::

주님의 뜻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5:16~17).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도, 저축할 수도,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를 시간 부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벗어나 홀로 지낼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했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착각합니다. 혹시 나는 나의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야망을 이루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6:18~19).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의 영역에는 항상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교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모으고 쌓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모으고 쌓는 곳에 죄성이 파고들어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힘으로 군림하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원하여 물질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이웃과 더불어 먹고사는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무엇이 변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소유를 가지고자, 또 높아지고자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높아진 자의 성공이 아닌 낮아진 자의 승리가, 많은 소유가 아닌 나누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이때에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따라가야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4:1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상화평 목사

Good News

세상에는 수많은 이방종교들이 있고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막힌 길이고, 끊긴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이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종교에

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석가탄일이 다가오면 도심 곳곳의 가로수에 긴 줄을 묶어 연등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한 종교행위는 자기 과시에 불과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는 일입니다. 연등을 달고 방생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

:: 프롬인터넷 ::

어떤 사람이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되고 낡아 빛바랜 진주 목걸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좀 비싼 듯 했지만 500달러에 사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팔아야 할 만큼 집에 급한 일이 생겨 그것을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은 한참 동안 감정을 한 후 이 사람을 한 번 쳐다보고는 2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명한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주인도 한참을 감정하더니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은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돌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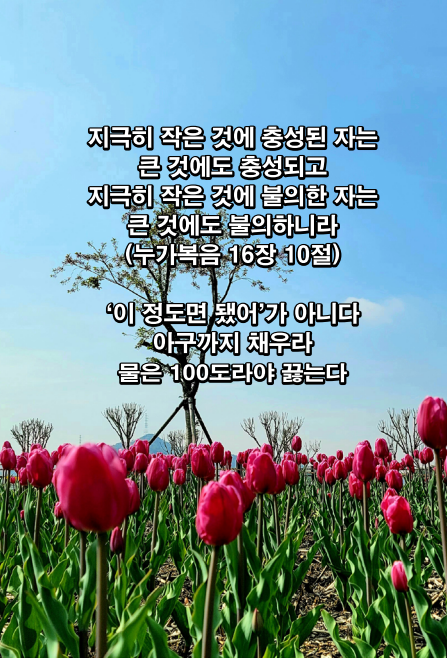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 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 값이 훨씬 더 비쌌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물상에 있으면 불과 500불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카스 삶의 향기

하나님의 응답

언니가 천국 간 같은 달에 남편이 급성 저혈압으로 소천했다. 남편은 고관절 수술 후 집거하면서 알코올에 더욱 의존했고, 누가 봐도 간경화 말기 증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수가 차오르자 남편은 복통을 이유로 술을 진통제 삼아 마셨고, 병원 내방 권유도 거절했다. 통증은 남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 나는 매일 극심한 고통의 과정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라 기도했다. 고아로 자라며 경도 지적장애까지 있어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남편은 가족들을 의지하고 사랑했었다. 며칠을 낮 장사만 하고 언니의 유품 정리 겸 남편의 짐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청소가 끝나고 정상영업을 가동한 날이었다. 낮 2시경 퇴근한 딸은 아빠가 몸을 유독 많이 편다고 하길래, 나는 많이 아프면 같이 병원에 가자며 통화했는데 나중에 가겠다는 답만 들었다. 그러나 딸이 아빠에게 쉬고 계시라며 누혀드리고 샤워를 하고 나온 사이 남편은 사망했다. 심폐소생술도 실패했다. 딸은 ‘그날도 전날처럼 일찍 퇴근했더라면...’, ‘샤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자책하며 슬퍼했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라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애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셔서 그리하신 거라고 딸을 위로했다. 실제로 남편과 딸은 주기도문 암송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열편 강의를 하기도 했고, 남편은 주일날이면 헌금 하라며 용돈도 주었다. “여보, 나 오늘 기도했어.”라며 어린애마냥 자랑하던 여러지만 예쁜 믿음의 소유자였다. 분명히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누가 죽는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을까. 동생도 그랬고, 남편은 죽기 수 분 전까지도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 어찌 살아야 할까? 언니와 남편의 죽음을 보며 문득 생각이 깊다. 그저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예수님을 크게 불러를 따름이다.

추성숙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